



제 2027호 2018. 5. 27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 청소년 주일

제1독서 : 신명기 4,32-34.39-40

제2독서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14-17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28,16-20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옆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
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성당에서는 “신부님”이라 불리고, 집에서는 “아들”, 혹은 “오빠”로 불리고,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형” 혹은 “함승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조카들에게는 “삼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불리는 이름에 따라 그 역할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부님”으로 불릴 때에는 사제로서 미사와 성사집행 같은 일들을 하고, “삼촌”이라고 불릴 때에는 조카들을 돌보고 놀아주는 일을 하지요. 이렇듯 저를 보는 사람에 따라 저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각각의 이름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다르지만, 제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1지구 용산 성당
함승수 세례자요한 신부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삼위일체의 신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이름, 즉 서로 다른 세 위격을 지니고 계시지요. ‘성부’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느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시기 위해 서로 다르면서 또 같은 신비로운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불려요.



담당_ 이서진 엘리사벳

그러면 하느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집에서는 착한 자녀로서,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학생으로서, 성당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요?



*퍼즐 조각을 모아서 붙이면
하나의 예쁜 그림이 완성된답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에 들지 않는 분은?

- ① 하느님 ② 성모님 ③ 예수님 ④ 성령

♥ 예수님 사랑 나도 할래요 ♥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다 (탈출기 34,5-9)

주님께서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하느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 오시어 어떤 이름을 선포하셨나요?
성경을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담당 = 송민경 도로테아



글/그림 이경원 베네딕도

요한이는 운동을 잘 하지만
공부는 잘 못하고



안나는 공부를 잘 하지만
교리는 잘 몰라요.



야곱이는 다른 건 잘 몰라도
교리만큼은 최고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 명 한 명도 멋진 친구지만



우리 셋이 함께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최고의 팀이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랍니다.



◆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



부활하신 예수님



삼성동 성당 2학년 김준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시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려보았어요.

‘우리들 숨씨’는 어린이,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부모님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 글, 그림, 사진 등을 주보 앞면의 주소지 또는 스캔처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주보에 실린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복자 톨보기

복자 이조이 막달레나 (1808~1840년) / 신분: 과부, 순교자



이조이 막달레나는 19세 때 과부가 되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죽기 전 그녀에게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남편이 사망했지만 이 막달레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불쌍한 이들을 돕고 교육에 앞장섰지요.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된 그녀는 감옥 안에서 온갖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또 함께 체포된 신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천주님과 더불어 솔직하게 행동합시다. 그분에게 충실하여 모두 함께 천국에 올라갑시다. 하나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라고 다독였고, 동료들과 함께 1840년 1월 4일 참수형으로 순교했어요.

복자 124위 초상화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담당_ 김연재 엘리사벳